

	샘 고 을 通 信				샘고을중학교 2025-03-16
	교 무 실	535-2509	fax	535-1892	

2025학년도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1 장애인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차이

장애인

신체적, 정서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 관리, 지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한다.

2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긍정적인 점

1.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사회성과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얻게 됨.
2. 우리학교 학생들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바른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배움.

3 통합교육 Q & A

Q1. 별관에 있는 ‘지원반’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A1: 지원반은 본교 특수학급을 부르는 우리 샘고을중학교의 명칭입니다. 지원반(특수학급)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하는 곳으로 일부 교과(예: 국어, 수학, 진로와 직업, 영어)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기능 및 진로와 직업교육 등을 학습합니다.

Q2.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A2: 장애학생의 분리교육(특수학교나 전일제 특수학급)이 학습적인 면이나 감각적인 면에서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목표는 학생 개개인이 가진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부터 장애학생들을 통합시켜 교육해야 합니다.

Q3. 아이가 장애학생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뭐라고 말해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A3: 장애학생이라고 무조건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상황을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면 “도움이 필요합니까?”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도움을 준 아이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세요.



현장 탐구

다. 양. 성.

다르기에 가치있다.



우리는 보통의 기준을 정하고, 모두가 그 기준을 닮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자신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표현할 때, 다양성을 존중할 때 창의성과 경쟁력이 생깁니다. 작품을 통해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장애인 먼저
영국어 아니라 행동입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차이? VS 차별? **차이 존중과 차별 대우**

그건 차별이 아니고 차이를 존중하는 거랍니다.

장애인은 용변을 볼 때도 비장애인에 비해 곤란한 점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 차이를 존중하여 장애인을 배려하는 거지요!

차별이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일과 관계없는 '외모' 항목을 넣는 다거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라 해서 임금을 적게주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면접관

₩ 500 **₩ 1000**

기억하세요!

차이 존중
원래부터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

차별 대우
성, 인종, 지역 등을 인위적으로 구별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

글 : 김차명(경기도 시흥정왕초등학교 교사) 그림 : 오토리

장애인 먼저
식문화운동본부

2025. 3. 16.

샘 고 을 중 학 교 장 (직인생략)